

# 오피니언

## 데스크시각

박치경



‘스마트 5·18’이라야 산다  
나뭇잎들은 예외없이 싱그럽게 피어났지만 5월은 내내 마음이 무겁다. ‘그날’ 후 강산이 세 번 바뀌고 또 한 해가 돌아왔지만 햇힌 응어리가 아직도 제 살로 온전하게 풀리지 않았음이라라. 그것이 찬연한 5월의 햇살을 받으면서도 발걸음이 가벼울 수 없는 탓이다.

이제 청년기에 접어든 5·18의 숙제는 과거와 미래로 나눠 볼 수 있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실종자 찾기, 피해자를 보듬는 원천적인 과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희생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히고 이런 매년

후년의 모습은 더 걱정이 된다.  
‘30+1’은 5·18의 기로다.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활기차게 열어나갈 방법은 단 하나, ‘스마트 5·18’로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인터넷 단계를 넘어 스마트 단계에 진입했다. 미래학자들은 향후 10년간 국민생활이나 경제, 정부 등 국가 전반과 함께 국제관계에서도 상상을 초월한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근의 추이로 보아서는 10년 못미처 수년 내에 그러한 예측이 현실로 다

아직도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희생자들의 피 묻은 유품을 꺼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도 시급하다. 홀로코스트의 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유물전시관처럼,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세계 민주 인권운동의 교범으로 활용됨은 물론이다.

### 먼저 변하는 게 해법

5·18의 남은 숙제는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일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바깥 세상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광주만의 5·18에서 땀물 수밖에 없다. 고집병인 헤게모니 다름으로 스스로 상처를 낸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따뜻한 시선마저 눈길을 돌릴 것이다.  
‘5·18 30+1’을 보내는 단상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세상은 고답적인 과거와 멈춰있는 시간을 거부하는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같은 조류에 맞추려면 이제는 피해자 논리에서 벗어나 민주 인권 운동의 주도자로서 다가오는 5·18의 30년을 열어나가야 한다.

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5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스마트 5·18’로 탈바꿈하는 것은 필수선택이다.

/unipark@kwangju.co.kr

## ‘스마트 5·18’이라야 산다

국가기념일로 정부가 기념식을 치르고 있지만 아직도 ‘화살’을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내지 못했고, 생사를 모르는 실종자가 남아있어 원이 다 풀리지 않았다. 더불어 5·18이 지난 인권과 민주라는 보편적 가치를 널리 실천해야 한다는 큰 짐도 남아 있다.

이렇듯 안팎으로 결코 수월치 않아 보이는 과제를 안고 있는 터에 열기가 식은 상태로 31주년 행사가 마침표를 앞두고 있어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 5·18이 새로운 계기를 만들지 못한다면 다가올 내년, 내

가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고 변화하는 여건에서 5·18 또한 최소한 결음을 같이하거나, 앞서 가지 못하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기 십상이다. 스마트 사회에 ‘스마트 5·18’로 변신하지 못한다면 30+2, 30+3-의 5·18은 더 초라하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스마트 5·18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서른 넘은 청년이 된 만큼 성숙하고 ‘영리한’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한다.

## 시설

### 정부, F1 제동보다 전폭 지원이 우선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에 대해 “F1이 국가행사자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밝힌 F1이 국가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전남도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 공사비나 대회 운영비 전액 지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 향후 대회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류 차관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서야 공공재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남은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재정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차관의 이러한 발언들은 전남도가 “예초 F1 대회를 수익사업 성격으로 시작했으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시인한 것처럼 무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남도가 F1 대회를

수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먼저 살펴야 한다. F1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국가적 사업임에도 ‘전남도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었지 않았는가. 또 F1 대회는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J프로젝트’의 선도시업으로 출발한 만큼 전남도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F1은 이를 개최하는 세계 어느 나라든 수익성을 떠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이자 전세계 6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F1 대회는 경제적 파급과 국가 홍보 효과 등을 감안하면 분명 국가적 행사다.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육상경기대회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정부는 좀은 틀에서 잘못됐을 따지기 보다는 큰 틀에서 F1의 성공적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F1이 차질을 빚는다면 국가의 위상 실추는 불 보듯 뻔하다.

### 주택가 파고든 유흥업소 이대로 둘 건가

광주시가 각종 유흥업소의 심각한 폐해 때문에 도심살을 앓고 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 안마 시술소, 나이트클럽, 러브호텔 등 온갖 유흥시설이 주택가에까지 마구잡이로 침투해 주거·교육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 상무·풍암지구와 북구 용봉지구 등 신도시 택지지구 일대는 유흥지구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각종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모텔촌이 들어 서고, 학교 가는 길목 곳곳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선정적인 그림으로 치장된 유흥업소 간판이 즐비 하는 등 택지 지구가 아니라 마치 환락지구로 착각이 들 정도다.

동구 등 구도심 지역도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고 업무시설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에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 서고 있다. 이들 업소는 여중업원을 고용해 고객 유치에 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이 같은 유흥시설의 무분별한 진출은 잘못된 건축행정과 허술한 단속이 원인이다. 개발이익만을 생각해 주거지역에 상업·업무시설 설치 가능케 하는 등 일관성 없는 건축행정이 부른 결과인 것이다.

주택가 유흥시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전해주는 일이다. 지금처럼 유흥업소 폐해를 방관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당국은 러브호텔 같은 백해무익한 유흥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완전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위주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숙박시설과 위탁시설의 입지조건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허가심의 절차에 지역주민 의견의 선정적인 그림으로 치장된 유흥업소 간판이 즐비 하는 등 택지 지구가 아니라 마치 환락지구로 착각이 들 정도다.

무엇보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오는 2015년 하계 U대회 때 광주가 아시안화중심도시가 아니라 환락의 유흥도시로 비쳐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박현순

전 세계적으로 IT 산업 다음으로 확산 발전되어 가는 코칭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의 21세기 교육에 바야흐로 코칭리더십이 포함되고 있다. 과거의 일방적인 가르침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자기 개발 코칭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대학들이 코칭리더십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전남대학교에서는 신경언어학(Neuro-Linguistic Programming) 코칭 전문가를 초빙하여 일반과정, 마스터과정, 그리고 교수과정까지 거치는 3단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코칭리더십 교육을 양성하였다. 신설된

### 21세기 교육은 티칭에서 코칭으로

자기개발 코칭리더십은 학생들 사이에 단연 최고의 인기 교과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내가 가르치는 외국인 유학생반에서는 중국, 필리핀, 카자흐스탄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울려 글로벌 리더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자기개발 코칭리더십을 잘 설명하는 성격의 한 예화가 있다. 어떤 주인이 번갈아 떠나면서 세 사람의 종에게 각각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를 맡겼다. 금 한 달란트는 약 30kg의 가치이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은 장사하여 각각 두 배의 이윤을 남기었지만,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 엄청난 자산을 땅속에 묻어둔다. 나중에 그는 주인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고 쫓겨난다.

우리 모두는 생의 끝, 그 종말의 순간에 절대자 앞에서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정산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맡은 달란트를 사정사기

지 않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바로 자기개발 코칭리더십이다.

코칭리더십 교육은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꿈과 비전을 수립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긍정적 미래가 실현되었을 때의 느낌과 성취감을 상상하면서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촉구한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자신감이 없어, 우리 집은 가난해 등등 자기 스스로를 묶는 잘못된 제한신념들을 찾아내서 이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 갈등 관리와 협상,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 등을 팀 실습을 통하여 배우고 거듭되는 발표로 자신감을 키워나간다. 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 절하하며 재능을 충분히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클럽을 심는 코너입니다.

## 기고



박인선

전국 지역농협 중 30위권인 서광주농협이 금품선거로 2년여마다 조합장 재선거를 치르고 있다.

2005년 이후 조합장 2명이 연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다. 지난 2009년 6월 24일 치러진 재선거에서도 당선된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당선무효가 되었다.

그리고 오는 27일, 또 한 번의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똑같은 일이 3번씩이나 일어

### 서광주농협 재·재·재선거 이전 그만

난 것이다. 이른바 재·재·재선거인 셈이다. 왜 이렇게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

아마도 어떻게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들 수 있겠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역대 금품을 살포해도 당선되면 각종 이권개입 등을 통해 쉽게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그 원인을 후보자의 탓으로 치부해 버리면 끝나는 것일까? 이들에게 금품을 받는 조합원의 잘못은 없을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선거 때마다 조합원들은 이런 후보자의 금품살포에 자신의 소중

한 표를 파는 행위가 많이 있었다.

공짜처럼 여기면서도 결국 투표일에 금품을 건넨 후보자에게 표로서 보답한다. 받았으니가 되돌려준다는 식이다.

하지만, 금품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이 얼마나 조합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까? 아마도 조합의 발전보다 선거 때 쏟아 부은 돈을 보상받기 위해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비리와 이권에 개입하는데 보다 힘쓰지 않을까?

결국, 그 조합의 건전성은 약화하고 조합원의 주머니가 새고 조합의 발전은 저해된다. 중국에는 생활의 터전인 농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불법 금품선거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는 그 피해는 고스

란히 누구의 뒷자리 곰팡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장선거부터 바로 서야 한다. 재·재·재선거라는 불명예를 만들게 된 원인에 대해 조합원 스스로 반성하고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을 일삼는 후보와는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27일은 서광주 농협조합장 재선거 일이다.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깨끗하고 유능한 조합원의 대표자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일삼는 부패한 선거꾼을 당선시켜 결국 조합원의 피 같은 돈이 낭비되고 조합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만들 것인지, 그것은 이제 조합원이 선택할 때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 교통사고 '나일론 환자' 입원 일수 제한했으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그다지 큰 부상이 아닌데도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가 드러눕는다. 이 같은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도 오른다.

한 손해보험회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 중 70%가 사고 직후 무조건 병원에 입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경상환자였다고 한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입원율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나일론 환자' 천국인 셈이다.

보험 다른 집착사고의 경우 대체로 서로 잘못을 가려 6대4, 또는 7대3 정도의 과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당사자들은 보통 적당한 합의하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 설사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고 해도 자신의 과실도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드러눕는 일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차를 뒤에서 다른 차가 충돌했다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한다. 이 경우 이유여하를 따론하고 100% 뒤차에 과실이 있다.

이 같은 행태는 병원에 입원해 무조건 몇 십만원 이상 돈을 받아내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

부상 정도가 경미한데도 입원한 나일론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일수를 제한했으면 한다. 그러면 나일론 환자를 줄이고, 자동차 보험의 부실도 막고, 그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혜성·광주시 서구 서침동

### 임산부 보험상품 가입 제약조건 너무 많아

이번에 둘째 아이를 갖고 임산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보험사에 전화 상담을 해봤다. 보험회사에서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왕절개 경험이 없는 나는 그 보험회사의 임산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따져봤다.

그런데 사실상 임산부 보험상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임산부가 가입하기에 제약이 너무 많았다.

대부분의 보험가입 조건들이 임산부에게는 불리하고 보험업체에만 유리하도록 설

계 있었다. ‘보험회사 좋은일 시켜주자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라는 회의감마저 들었다.

그나마 인터넷 태아보험 관련 사이트들이 임산부 보험을 받아주고 있지만 회사의 규모 조차 알 수 없어 보험가입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정부는 보험사들이 임산부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장되는 보험상품을 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

▲남파도·광양시 도이동

## 無等鼓

‘살증난 태도, 지루해 하는 태도, 감정을 드러낸 태도, 뻔뻔스러운 태도, 냉정한 태도, 속이 뻘뻘 들여다보이는 태도, 지배하려는 태도, 심술궂은 태도, 아파하는 태도, 어리광과 무관심이 악의가 섞인 모양이 같은 태도’

시인 보들레르가 팜프파탈(femme fatale)의 특징으로 묘사한 열 가지 태도에다. 탐미주의와 상징주의로 대표되는 세기말의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매력에 걸린 속명의 여인을 팜프파탈이라고 불렀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 카락과 밀랍처럼 희고 부드러운 피부, 피처럼 붉은 입술과 계승 스레한 눈빛, 남치는 성격 매력으로 무장한 미인이 바로 전형적인 팜프파탈이다.

보들레르가 활동하던 19세기 중반 파리에 도취한 미모와 풍부한 교양을 지닌 ‘사랑의 여신’이 존재했다. 파리 사고계 남자와 당대 최고 예술가들의 극찬을 받았던 ‘아폴로니 사바티에’가 그녀다. 사바티에는 당시 젊은 조각가 클레징

랑했다’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관능적인 사랑에 금을 굶는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유명인들이 섹스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실비아 베를루스coni 이탈리아 총리, 팔프황제 타이거 우즈, 세계의 성적 매력으로 무장한 미인이 바로 전형적인 팜프파탈이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들이 상대한 여성은 전형적인 팜프파탈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성을 망치는 팜프파탈은 결국 남성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홍행기 정경부처장redplane@



### 팜프파탈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일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건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